

## 공원설계에서 기념성의 문제

-서울대 4.19 紀念公園과 서초조각공원의 예-

유병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Some issues on monumentality in park design

Two case of 4.19 memorial park of SNU and Soecho sculpture park

Yoo, Byung-R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judgement of how good a memorial park is designed in terms of representing symbolic meanings through monument depends on whether it decisively reflects peoples' common value and affection to specific event or place of the park. It is in fact, not easy to define the kind of value and affections peoples have in mind for the park. It is likely that most park design concepts are primarily based on designer' subjective view of the world by which the public is expected to understand, accept, and eventually share the common symbolic meanings of the park. A memorial park design as the works of art might be appreciated not only in view of artistic performance of designer but in terms of its social meaning of the newly defined space. Two cases of park designs by author include issues on conceptual alternatives, experience of memorial space, symbolic use of materials, and perspectives on the direction of contemporary park design. It is noteworthy that authentic approaches should be challenged for a new way in which symbolic meanings could be given in rather contradictory style.

## I. 기념성을 부가하는 공원설계 방식

어떤 사물을 공간에 기념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나 가치를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서 공간에 남긴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뜻이 매우 애매 모호해서 기념하려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단순히 객관적인 기록이나 판단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이미 共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념성이라는 개념을 설계가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조성하게 된다. 결국 설계가가 갖고 있는 心象에 그려진 상징성이 다행히 보통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것과 공통적인 요소가 많게 되면, 표현된 기념적 공간은 널리 여러사람에 의해 공감을 불러 일으키며, 나아가서 感動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을 읽어내는 기법이 확실하지 못해서 설계나 비평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사례가 많다. 기념적인 의미를 공간에 부여하는 공원설계는 보통 경우에는 이미 알려진 특정 장소나 기념물 주위에 좀더 기념성을 부가하는 공간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전혀 새로운 토지에 그곳과 별 상관이 없는 상징적인 의미를 설계로서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때 설계방식과 설계태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전자에서는 이미 그 장소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꺼리나 유명한 사건기록 또는 기념할 내력이 있어서, 작은 형체에서부터 상당히 큰 상징물에 이르기까지 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미 그 공간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 경우 설계에서 이미 默示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념성을 이들 실마리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의미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후자 경우에는 기념해야 할 대상이나 기념성 자체를 확인하고 정의하며, 이에 따라 공간구도를 설정하는 일 자체가 전혀 새로운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개념적인 수준에서 기념대상이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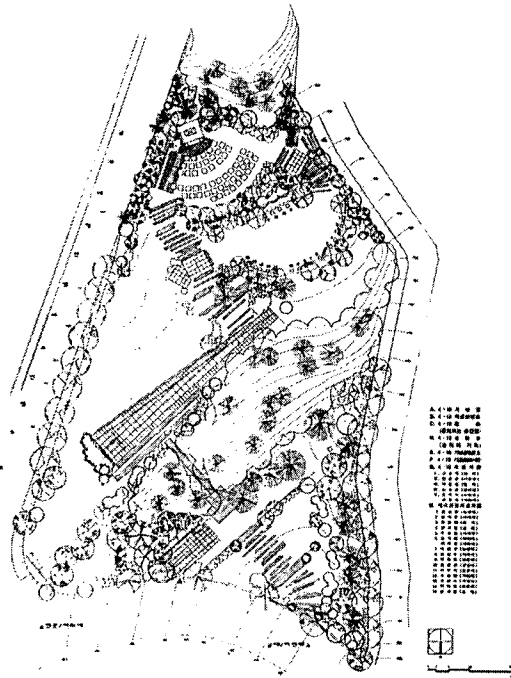
간이 구상된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를 막연히 설명하거나 요구하는 정도에서 설계를 착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설계과정에서 참고하고 이용해야 할 실마리를 찾는 데 상당한 解析力과 감각이 필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설계가 우수하지 여부가 바로 그러한 통찰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 4.19공원은 설계 성격상 전자에 속한다. 그곳에는 이미 기념탑이 있어 일정한 기념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공간이용 형태도 일정한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설계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서울대내 각 대학에 산재하고 있던 4.19 이후 시국관련 사망학생들을 추모하는 묘비를 위시한 각종 기념물을 이곳으로 모아 새로운 상징성과 기념성을 공간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서초공원은 이에 비해 전혀 새로운 조형물과 설계를 통해서 공원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새로 창출해야 하는 일로서, 조각작품을 공원내에 설치하고 한편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시공간을 설정하며, 野外 公演활동까지 감안해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공원이라는 공간에 기념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경과 조각은 조형태도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공원에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공간을 접함에 따라 공원에서 기념하는 바를 총체적으로 느끼고 알게되는 반면에, 조각은 대상 그 자체로 한순간 한번 시각적 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감흥으로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받는다. 따라서 지형, 위치, 좌향, 수목들과 같은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조경설계에서 기념성을 창출하는 전제가 된다. 조각에서는 이와는 달리 그 시대 그 지방이라는 문화적 맥락속에서 순수한 형태를 통해 인간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本質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물을 공원에 아무리 많이 설치한다해도 인접하는 조각과는 환경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는 상관성이 크게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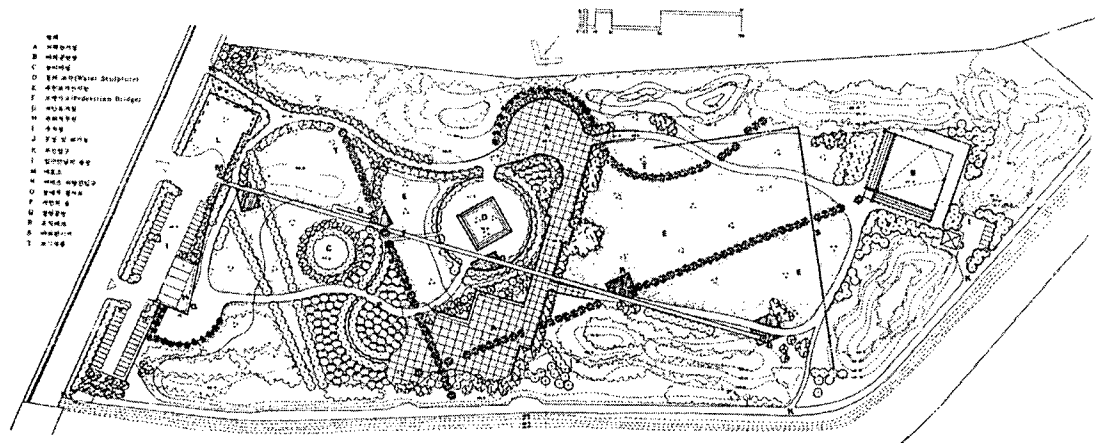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조경설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을 향수하는 감상자를 대상으로 놓고 볼 때, 조각은 어느정도 예술에 대한 예비지식이 있다면 좀 더 높은 感興을 갖고 작품이 갖는 높은 질적 수준에 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념공원에

서 작품성을 감상하기 위해 예비지식이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공원에서 기념성이 공공이라는 입장에서 묵시적인 승락 내지 합의, 나아가서 공통된 인식하에서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어려움이 있게 된다. 말하자면 공원에서 기념성은 한 작가의 눈을 통해 기념대상에 대한 정확한 가치판단과 均衡感覺을 전제로 설정되기 때문에 시대적 潮流나 藝術思潮, 재료사용에 있어서 대중적 취향을 선택한다든지 등등 다분히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창작될 수 밖에 없다.



(그림1) 서울대 4.19 기념공원 기본계획도

4.19공원과 서초공원은 새로 조성하는 공원이 아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땅에 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형을 바꾸고 기념물을 설치해서 뚜렷한 主題를 갖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적인 설계보다는 이미 있는 환경장치물을 충분히 살려서 - 이것이 설계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 새로운 의미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설계로서 그 개념이 설정되었다. 4.19공원에서는 입구에서 기념탑까지 기념성을 의식하고 체험하는 공간설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어서, 행로상에 새로운 공간을 체험하여 점진적으로 공간의미를 체험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었고, 한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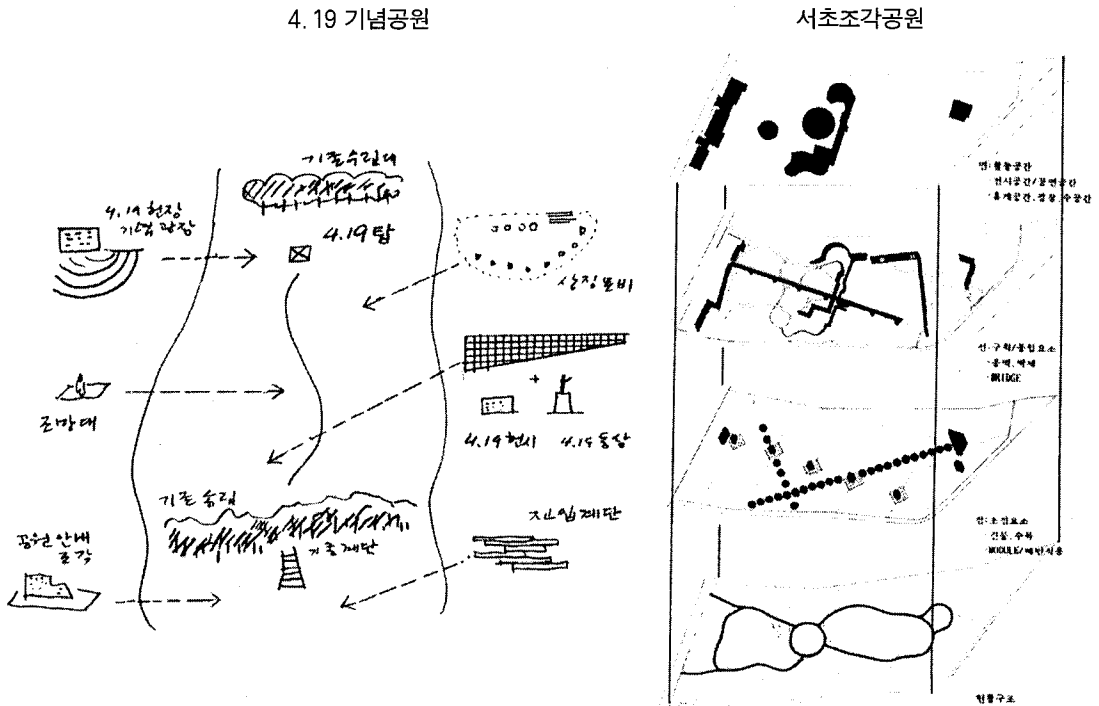
(그림 2) 서초 조각공원 기본계획도

초공원은 기존동선과는 달리 동선체계를 수직적으로 併置하는 새로운 보행가교를 설정하여 그 중심개념으로 삼았다. 전자에서는 이미 기념성을 갖고 있는 기념탑을 최종단계에서 체험 대상으로 하여 예상행로 도중에 몇가지 시각적 체험을 갖게하는 공간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념성을 더 강조하려 한 것이고, 후자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공터에 조각물, 보행가교, 전시광장등과 같은 새로운 場所 設定요소를 附加함으로써 새로운 성격을 갖는 공간을 체험하게 한 것이다. 두 공원 설계는 다시 말하면, 기존하는 공간 구도에 새로운 성격을 갖는 공간을 정의하여 또다른 공간을 형성해야 하는 설계과정을 거쳐야 했다. 즉, 현재있는 공간체계에 새로운 공간체계를 重複시켜 두 체계가 동시에 작동 되도록 설계에서 구상되어야 했다.

## II. 환경맥락과 맥락이 있는 환경

서초공원은 조각작품을 서초구에서 구매하여 공원에 전시하고자 공원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조각공원으로 설계되어야 했고, 따라서 조각전시가 공원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설계를 착수할 당시 조각작품이 어떤 형태가 될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할지 등이 정해지지 못한채, 공간구획을 구상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각작품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적 요구조건이나 주위환경에 대한 조건을 설계에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보행가교는 공원설계 개념상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으나 단순히 조각감상에 방해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 때문에 조각가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결국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步行架橋의 설계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것은 조각가에게는 조각작품을 감상하는



(그림 3) 두 공원 설계 개념도

일정한 환경조건이 있고 공원을 설계하는 조경가에게는 공간체험을 위한 독특한 공간적 脈絡이 있어서 이들 성격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체험되어야 할 공간과 대상이 기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뭉뚱그려진 일체적인 감흥을 주는 공간체험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통 조각가는 설치되는 야외조각을 일정한 거리에서 감상하게끔 작품이 제작될 뿐, 바로 인근에 설치되는 조각과의 관계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조경가는 이와는 달리 구역마다 정의되는 공간이 단지 전체로 볼 때 다양하면서도 순차적이고 한편으로 일관된 공간체험으로 유도되도록 구상하기 때문에, 조경가는 공간체험과 전체적 구성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반면, 조각가는 조각품이 가져야 될 독자적인 환경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 이점에서 공간구성상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 Ⅲ. 意味를 전달하는 通路로서 園路

동선계획이라는 삭막한 용어로 이해되는 園路계획보다는 수필가가 눈으로 말하는 낙엽 쌓인 공원길이 우리에게 훨씬 정감있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은 길에 대한 사람의 특정한 정서가 그 장소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 행로계획은 단지 동선 설정이라기 보다 설계가가 연출하려는 공간에 대한 메시지가 순서적으로 演出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가가 전달하려는 뜻이 반드시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물론 모두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단지 기본적인 의미 전달만 있을뿐 체험의 순간에 작용하는 시각적 대상에 대한 의미 해석, 오감을 통한 장소감의 파악, 그리고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과 결부되는 의미부여등이 각자 나름대로 공간체험속에 배어 들어간다. 그러한 공간체험은 원로를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기억이라는 층으로 누적되어 간다. 결국에는

기억에 남는 뭉뚱그려진 인상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이것도 기념성이라는 가치를 연출하는데 직접 때로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行路계획에서 공간체험을 전개하기 위해서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 흐름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형과 결절점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이용자가 언제나 설계가가 의도하는 대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공간을 체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특히 공원내 행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경우 전체 흐름을 일관성있게 전개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기념성을 강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공원설계에서는 주제를 전개하는 경로와 실제 체험하는 순서를 여하히 합치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원에 기념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각적 軸을 설정하고 축상에 계속적으로 공간체험을 하기 위한 구역을 설정해나가는 수법을 사용하여 왔다.

현대공원에서는 축을 설정하는 방식이 고전적인 그것과 매우 다르게 시도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시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공원에서는 부분적인 시각과 동선상에 축을 설정하기 보다는 국회의사당, 린컨기념탑 등과 같은 도시적 시각에서 본 커다란 축을 설정하고, 정작 단지내에서는 축을 강조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와 視覺的 廻廊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설계에서 주목할 점은 대통령 얼굴을 중심으로 한 흉상을 리리프로 기념광장 벽면에 설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에서 친근감을 느끼게 한 것인데, 기념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로 자체도 강한 축을 의식한다기 보다는 자유롭게 주변의 역사경관을 접하게 하여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한 상징 주제를 환경의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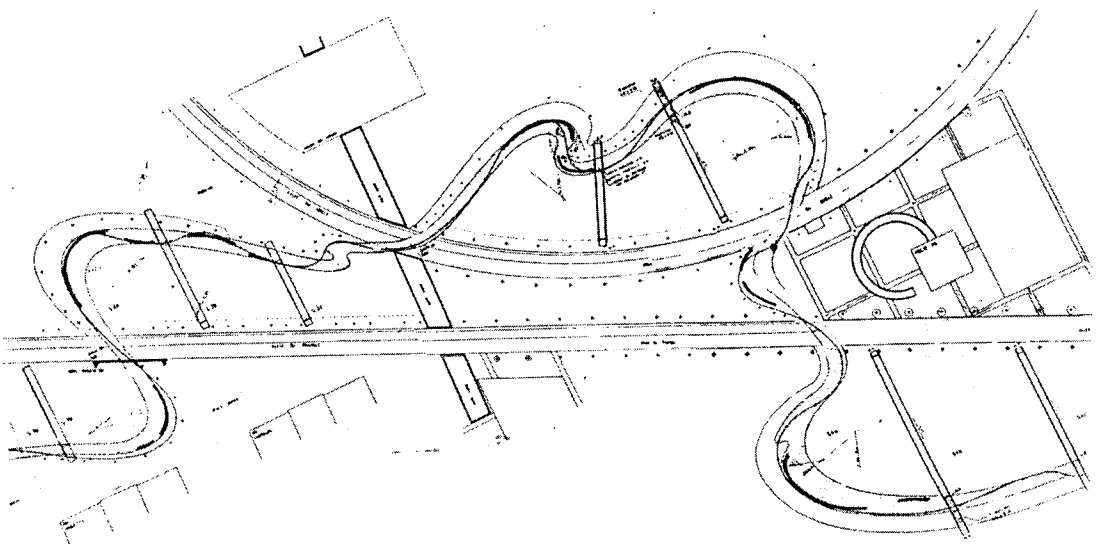
헬프린이 설계한 홀로카스트공원은 단순한 축이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게 설

정되어 있다. 방문객은 주차장에서 길을 건너 간다. 그리고 나선형 통로를 따라 점점 어두운 공간으로 내려간다. 사람들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점차 恐怖 분위기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 이윽고 중심부에 가면 특정한 상징물과 전시물을 보고 공포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방문객은 모든 두려움과 비참함이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해방되어 밝은 통로를 통해 출구로 나가게 된다. 즉 이용객은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환경요소를 주제로 공간체험을 하게 설계한 것이다.<sup>(2)</sup>

視覺的 軸이라는 도구는 결국 주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전혀 없거나 장소에 대한 내력이 강하지 못하여 인위적으로 공간에 위엄과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할 때 주로 이용될 뿐, 기념성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적 구성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토지에 부여되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어느정도로 강하게 표현하여야 하는가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행동선을 강하게 유도하며 시각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축이라는 수단이 공간체험을

강하게 유도하는데 긴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전통적으로 공원에서 보행로는 지형과 경사를 이용해 왔으며, 인공적인 구조물에 의해서 眺望과 통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라 비레트 공원에서 보행가교는 구조물 자체를 조형적 의미가 있는 오브제로서 설정하고 있고 동시에 공원에서 景物로서 설정되며, 동시에 여기에서 다른 방향의 경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원래 이 공원은 설계철학이 “자연만 있을 뿐 도시는 공원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움스태드流의 公園設計 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른바 해체주의적 배경에서 설계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공간체험을 풀리라고 하는 点的 요소, 풀리를 연결하는 회랑과 영화장면효과 같은 산책로등의 線的 요소, 또 광장과 같은 面的 요소로서 시각적 특성을 교묘히 활용하는 특이한 공원이기도 하다.<sup>(3)</sup>

특히 공원에서 경물을 설정할 때 바라다 보는 오브제로서 동시에 그곳에서 반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경관으로서 공간을 이중적으로 활용하는 수법은 우리나라 전통정원에서 자주 나타나는 시각적 설계기법과 유사한데, 예를 들어 정자안에서 바깥 경관을 바라다보는 장면이 동시



(그림 4) 라 비레트 공원의 공간구성 개념도

에 외부에서 볼 때는 오브제로 작용하는 것 같은 것이다. 이러한 양식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실험되고 있는 공원양식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초공원에서 보행가교는 개념적으로는 이와 매우 유사한데, 물론 시각적 고려와 동선처리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고, 공원 성격상 특히 조각을 감상하는 시점과 조망위치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즉, 야외조각을 단순히 지표면의 시점에서만 감상하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 땅보다 낮게 한편으로는 높은데서 내려다 보게 하여 조각을 여러 각도에서 鑑賞하도록 한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야외조각은 아래에서 혹은 위에서 바라다 볼 때 훨씬 조형성이 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 공원에서는 보행자는 보행가교와는 별도로 지표면에서 움직이는 비교적 느리고 이곳 저곳을 둘러보게 하는 공원내의 원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개념적으로는 이 두가지의 보행동선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실제 움직임에 있어서 적절히 교차 및 연결되도록 구상되었다. 빠른 직선 보행가교와 뱀처럼 구불거리는 느린 보행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용자는 순식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달려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평하고 협소한 공원이 갑자기 폭이 깊고 넓은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4.19공원에서 행로는 대지 조건상 이미 나 있는 길이외에 별도로 路線이 설정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미 정해진 행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단지 돌아오는 행로상에 副動線을 설정했다. 이 공원에는 대안적인 원로설정이 불가능한 여건이어서 새로운 주제와 이를 담는 장소를 새로 삼입,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종 목표물인 탑이 언덕 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방문자는 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서 이윽고 탑을 보며 강한 느낌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중에 어

떤 요소를 부가하여 공간체험을 풍부하게 할 것인가가 해결과제였다. 그 결과 중간부위에 전시주제를 설정하는 공간 즉, 수평적 이동을 의도한 보행광장을 삼입하여 급경사 계단을 올라오며 느끼는 신체적 압박감과 저항감을 극복하도록 구상되었다. 이용자는 입구에서 몇가지 공원에 대한 서론을 읽고 잣나무 숲을 거슬러 급경사 계단을 극복한 후 이윽고 길다란 전시광장에 다다르게 하여 - 즉 한숨 돌리게한다 - 공간체험상 중간단계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물론 행로는 여기에서는 수평적으로 보행자가 움직이게끔 설정되었다. 이곳에서 전개되는 기념성은 주로 詩와 구체적인 조형물 - 銅像 - 을 보게하여 주제에 대한 여러가지 상념과 사전 지식이 폭이 넓게 전개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기념탑을 볼때 기념성과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사전 유도과정이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언덕을 올라가면서 점차 마지막 단계인 4.19 탑으로 유도된다. 그 과정에 행로상 묘비 기타 환경장식물이 있는 공간을 옆으로 보게 하여 마지막 시각적 표지물에 대한 긴장감을 유도한다.

#### IV. 공원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는 활동들

4.19 공원은 매년 4월에 교내행사를 한다. 교내외 인사를 총괄해서 약 100명정도로 모인다. 공원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개인적인 참배이거나 이와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캠퍼스내의 휴식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기념탑 부근에 담기위해 야외광장이 필요했다. 성격상 공원에서는 활동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즉 - 아무리 행사에 좁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단 한차례의 행사는 참여자가 불편함을 참고 이해하게 되어있다 - 오히려 짧은 시간에 의도된 대로 공간체험을 하게 할 수 있는가가 실제적인 설계목표이다.

기념행사가 일어나는 동안은 대체로 공원내에서 설계가가 의도한 대로 일정한 순서에 의

해서 공간이 체험된다고 볼 수 있으나, 평상시에도 그와 같은 체험이 똑같이 유도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형이 급경사지여서 출입부가 한정되어있고, 정상부로 올라가는 행로가 일정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출입부에서부터 설정되어 있는 장치물(景物)을 따라 순서대로 공간체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설계 의도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공원 이용 성격상 정상부에서 탑에 대한 흥미, 凝視 그리고 잠간동안 지속되는 경건한 느낌은 오랜시간 지속될 수 없는 체험이라고 보며, 따라서 중간단계에서 4.19 사건의 내력, 獻詩, 그리고 기념동상 등으로 4.19에 대한 시각적 表象을 직접 확인하고 느끼게 하는 과정을 설정하여 최후로 경험을 좀더 기념성 있게 한 것이다. 활동 규모에서 볼 때 이곳은 약간 긴장감이 이완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건을 이해하며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공간행태는 행사가 없는 보통때에도 이용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태는 캠퍼스에서 쉬는 시간에 공간을 이용하는 유형과 유사하다고 보며, 자기만의 공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자유스러운 자세로 기대거나, 눕거나, 비스듬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적절한 장소나 공간설정이 설계상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막연하게 비어 있다. 결국 설계에서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空間行態가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다. 점차적으로 잔디밭이 점차 훼손되게 될 것이고 기념공간에서 유지되어야 할 엄숙하고 정숙한 분위기가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념성이 희박해지게 된다. 정의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예상할 수 없는 공간행태 때문에 말이다.

서초공원은 이용인구가 대체로 소규모 집단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학생층중에서 대학생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근 교육

회관에서 오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서초구민들로서 주로 근린공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간단한 운동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실제 공원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배드민턴 정도 할 수 있는 운동공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근린공원을 조각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근린공원시설로서 운동공간을 그대로 제공할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단지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애써 근린공원을 별도 이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 공원 설계에서 현실적 수요와 造成 理念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라고 생각한다.

이 공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천극장을 이용하는 활동인데,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옥외활동이 일어나게 계획되지는 않으나, 일단 행사가 있게 되면 일시에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연자와 관람자가 별도로 마련된 동선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었다. 마침 제방쪽을 따라 기존 뚝방길을 써비스 도로로 사용할 수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야외극장은 별도 공간이 호젓하게 조성될 수 있어서 위치 문제는 없었으나, 공원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있게 되어 평시에 다른 활동으로 이용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각공원에서 展示空間보다는 공원 목적상 우선순위가 낮다고 보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조각작품을 감상하는 일과 관련되는 공간설정이었다.

이 공원에서 園路는 지표상에서는 두갈래 길을 원칙적으로 구상하여 보행자에게 자주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용자는 항상 갈릴길목에서 걸어야 할 길을 택해야 하며 따라서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며, 이용자는 결과적으로 공간체험을 다양하게 하는 목표가 자연스럽게 달성되도록 의도했다.



## V. 메타포(metaphor)로서 기념성을 表象하는 재료

재료가 오브제로서 공간에 실체를 들어내면, 일단 보는 사람에게는 재료 하나하나 보다 뭉뚱그려진 상징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그러한 상징적 의미는 보는 사람의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는 고정적인 가치관과 재료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취향등 복잡한 개인적 감정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료가 전달하고 있는 객관적 象徵意味를 말하기 어렵다. 재료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다른 의미 전달 수단이며 나아가서 상징의미를 비유하는 메세지로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재료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고, 오히려 그 재료가 어떤 형상으로 어떤 맥락하에 구성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상징의미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역사적으로 조각은 바로 재료자체에 대한 실험이었으며, 형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공원이란 공간에서 기념성을 표현하는 태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실험속에서 예술가는 인간 자체에 대한 의미를 항상 반문하고 있고, 또 이미 내러진 기성 가치관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경가는 재료를 통해 새로운 공간체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형태와 재료를 항상 새롭게 조합한다. 절충주의에서나 미니멀리스트 예술 작품에서나 그 태도는 같다.

월남전 기념공원에서 검은 石壁은 재료와 색상을 죽음과 직접 비유한 예이며 여기에서 공간의 축이나 형태를 극히 단순화 시킴으로서 기념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죽은자의 이름과 배열 방식을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과 달리 하여 전사자에 대한 사람의 고정적 가치 - 예를 들어 군대계급에 따라 배치하는 것 같은 - 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전을 하고 있는 점이다.<sup>(4)</sup> 결국 공간을 상징화하거나 기념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요소를 달리 배열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전달되기 때문에 현

대적 상황에서 재료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추상적 의미를 정확히 찾아내어 새로운 상징성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설계가가 추구해야 할 의무일 것이다.

두 공원에서 사용한 소재는 어떻게 공간체험을 전달시킬 수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 그 목적에 합당한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4.19공원에서 수목은 일차적으로 시각적 초점을 연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었고, 배경이라든가 공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역할은 최소화하도록 구상되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자라고 있던 오리나무, 소나무, 목련, 전나무등은 배경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공간에는 오브제로서 나무 한그루 야생화 한포기가 갖는 상징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이 공원에는 4.19탑맡고는 눈길을 끄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공간체험에 있어서 긴장감, 연속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서든지 방문자에게 시각적 대상을 의도적으로 전개하여 기념성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현실에서 우리가 공간체험을 독특하게 한다는 것은 같은 재료라고 할 지라도 그것의 쓰임새, 위치, 사용된 공간적 맥락에 따라 전혀 새로운 느낌과 감흥을 불러 일으키며, 나아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본다. 이 공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관점에서 전달되며 또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그러한 뭉뚱그려진 복합적인 감정을 한송이 야생화나 눈아래 나타나는 디딤돌, 그리고 기념물을 연속적으로 접해가는 과정등에서 재료가 사용되는 통상적인 맥락 관계를 顛倒시킴으로써 여러가지 재료를 통한 상징적 의미가 재현되고 아울러 새로운 의미가 附加되도록 재료가 선정되었다. 4.19공원은 스텐레스 철재바닥으로, 서초공원은 낙엽송, 메타세콰이아 같은 정형성 橋木으로서 그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한 개인의 죽음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표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비판없이 설계 모티브나 재료선택에서 종래 慣習을 답습하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 기념성을 갖는 공간에서 선택되는 재료는 육중한 화강석 이외에 별다른 변화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단지 독특한 평면이나, 형태구성에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라고 본다. 이것은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조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표현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구성된 형태등에서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켜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재료 선택에서 변화가 없이는 궁극적으로 기념성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목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성의 再發見이라함은 새로운 조형성에 대한 미적 태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답습해온 기념성 표현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념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설계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설계가가 개인적인 발상에서 출발하여 사물을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어서 한 개인에 의한 기념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만, 그러나 일단 그것이 만들어지고 다수에게 읽혀지게 되면, 이미 개인이라는 차원을 넘어 그 시대 그 지방에서 胚胎된 문화적 가치나 시대적 藝術思潮를 표방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작품으로서만 볼 수는 없는, 예술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Thomas Aidala(1979), "The FDR Memorial", *Landscape Architecture*, ASLA. Jan, pp.42-52.
2. Lawrence Halprin and Robert Graham(1984), "Proposal for a holocaust memorial", *Landscape Architecture*, ASLA. March, pp.53-55.
3. Bernard Tschumi(1992), "Parc de la villete", *Designing the New Landscape* by Geoffrey Jellicoe, London:Thames and Hudson:114-121
4. Jory Johnson(1991),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Abbeville Press: 217-226
5. Thomas, H. Creighton(1962), *The Architecture of Monuments*, New York:Reinhold:6-13
6. Marc Treib(1988), "Sculprture and Garden : A Historical Overview", *Design Quarterly*, 141, MIT Press, pp. 44-57
7. 서초구(1991), 「서초문화예술공원」서울:26-27
8. 필립 존슨, 마크 위그리 편저, 이일형 김능현 공역(1993), 「해체주의 건축」 전일, 서울: 94-115